권탄준 교수의
경전읽기
화엄경 입법계품 <26>

휴사 우바이의 법문

해당 비구로부터 남쪽 해조(海潮)라는 곳에 있는 보장엄이라는 동산의 휴사 우바이(여성 재가신도)에게 가서 법을 물으라는 가르침을 받고, 선재동자는 그를 찾아갔다. 온갖 보배나무와 보물로 훌륭하게 장엄된 그 동산에는 무수한 보배로 아름답게 장식된 광대한 궁전이 있었는데, 휴사 우바이는 갖가지 장식으로 치장하고 그곳의 황금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주위에는 시방에서 무수한 중생들이 운집하여 그녀를 친근하며 공양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 우바이를 보는 이는 모든 병이 다 없어지고, 번뇌의 때를 여의고, 나쁜 소견을 없애게 되며, 수없이 많은 장애를 부수고 걸림없이 청정한 경계에 들어가는 등 이루다 헤아릴 수 없는 이로움을 얻게 되는 것이다.

선재동자는 휴사 우바이에게 나아가 예배드리고 보살행을 배우고 닦는 법을 물었다. 이에 대해 휴사 우바이가 설법하는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선남자여, 시방세계의 부처님들이 항상 이곳에 오셔서 나에게 설법해 주시고, 나는 항상 부처님을 뵙고 설법을 들으며 여러 보살들과 함께 있다. 나와 함께 있는 대중은 팔만사천억 나유타인데 모두 이 동산에서 나와 함께 수행하며 위없는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되었고, 이 동산에 있는 다른 중생들도 또한 그렇게 된다."

휴사 우바이가 머무르고 있는 곳을 '해조(海潮)'라고 한 것은 그의 행을 비유해서 나타낸 것이다. 선지식이 생사의 바다에 머무르면서 중생들을 제도해야 할 시기를 알아서 그 때를 잃지 않고 지혜와 자비로써 적절히 교화하는 것이 마치 큰 바다의 조수(潮水)가 끊임없이 드나들지만 때를 어기지 않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그가 머무르고 있는 동산의 이름이 '보장엄(普莊嚴)'인 것은 현실세계의 생사의 바다가 그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터전인 동산(園)으로서, 그 속에서 끝이 없는 자비행을 베풀어 시방세계의 중생바다를 깨끗이 장엄하여 부처의 바다를 성취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지식의 이름이 휴사(범어로 원을 이룬다고 하는 의미)인 것은 스스로 본원(本願)을 원만하게 하여 생사의 중생바다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자비행을 성취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지식의 역할이 자비심이 많은 여성의 이미지에 어울리기 때문에 우바이로 나타내었다고 생각된다.

휴사 우바이가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설법에서 밝히고 있는 바와 같이, 그는 현실세계의 생사의 바다 속에 있으면서도 항상 시방의 부처님들을 만나 뵙고, 설법을 듣고 있기 때문이다.

그가 팔만사천억 나유타나 되는 대중들을 데리고 항상 보장엄동산에서 함께 거처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중생세계의 팔만사천억 나유타나 되는 모든 번뇌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것을 다스리고 바르게 인도해 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를 보거나 가까이 하는 이는 모두 이익을 얻게 되고, 위없는 깨달음에서 물러나지 않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생사의 바다속에서 자비로 중생교화
일체 불국토 장엄하려고 보리심 내

이 외에도 휴사 우바이는 자기는 과거 무수한 겁 동안 헤아릴 수도 없이 생을 되풀이하면서 무량한 부처님을 공경, 공양하고 불법을 수지해 왔으며, 보살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한량이 없는 것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법하였다.

"선남자여, 보살은 일체 중생을 교화하기 위해 보리심을 내는 것이며, 일체 부처님을 공경하고 공양하기 위해, 일체 불국토를 장엄하기 위해, 일체불법을 수호하고 수지하기 위해, 일체의 큰 서원을 이루기 위해, 일체 중생의 번뇌를 끊기 위해, 일체 중생의 소원을 이루어 주기 위해 보리심을 내는 것이다"

이 법문을 들은 선재동자가 이 해탈의 이름을 묻자 휴사 우바이는 '근심없고 편안한 커다란 깃발(無憂安隱幢)'이라 하고, 나는 오직 이 한 가지 해탈만을 알 뿐이라고 대답한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마음도 편치 못하고 남도 힘들게 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 자기도 편안하고 자기 주위의 모든 사람들을 휴사 우바이처럼 편안케하고 많은 도움을 주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금강대 불교문화학부 교수>

禪과 21세기

보조지눌의 '간화결의론' ㉑

화두와 법계

하나의 화두에 의해서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뜻이 일시에 드러난다는 간화선의 기본적인 입장은 오늘날도 여전히 간화선자들에게 널리 공유된 대표적인 신념체계이다. 이점은 간화선의 유용성에 대한 다른 교학과 차별되는 간화선의 독자적인 입장을 대변해준다. 하지만 바로 이점 때문에 일반 대중들이 간화선의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있다. 왜냐하면 경험상으로 사실 수많은 법문과 한량없는 뜻을 한꺼번에 일시에 얻기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떻게 부처님께서 일생을 다해 설한 법문을 일시에 다 얻을 수가 있겠는가? 이런 반론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법문이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진 지식의 체계가 아니라, 분석되지 않는 체험이라고 한다면, 가능하다. 오히려 간화선의 주장이 더욱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생각한다. 보조선사는 이점을 수료화상의 경우뿐만 아니라, 영가진각과 대혜종고 선사의 실례를 들어 논증하고 있다.

영가선사가 처음 혜능선사를 만났을 때, 세 바퀴를 돌고 혜능선사 앞에 우뚝 선 일, 이 문답은 매우 유명하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거론할 필요는 없겠다. 말없이 우뚝 선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만약 이것을 개념으로 언어에 의해서 설명을 한다면 한량없는 법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진실은 우뚝 선 그 자리에서는 한량없는 법문이라도 여전히 충분하지 못한 것이다. 계속된 혜능선사와의 문답에서 영가선사는 "체달한 즉 그것은 발생한 적이 없으며, 깨달음에는 본래 빠름이 없다(體卽無生 了本無速)"고 말하고, 이에 혜능선사는 "그렇다 그렇다(如是如是)"라고 응답한다. 그렇다. 그곳에는 발생과 소멸이 없으며, 빠름과 느림이 존재하지 않는다. 발생과 소멸, 느림과 빠름은 공중의 꽃처럼 허구일 뿐이다. 그런데 나중에 <증도가(證道歌)>에서 영가선사는 "한 성품이 일체의 성품에 원만하게 통하고, 한 법은 일체의 법을 포함한다. 하늘의 한 달이 모든 강물에 비추고, 모든 강물의 달은 하늘의 한 달을 머금는다"고 노래한다. 이것은 분명하게 화엄법계의 다함이 없는 공덕과 작용을 설한 것이다.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만, 처음 '우뚝 선' 침묵의 자리에서, 혜능선사와의 문답, 그리고 <증도가>에 이르기까지 갈 수록 말이 많아지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모든 작용과 법문은 처음 '우뚝 선 그 자리에서' 흘러나온다는 반증이 아닌가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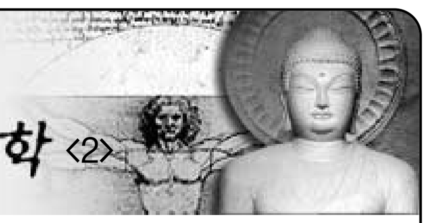
이 점은 남송의 대혜종고 선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홀연히 꿰뚫어 법계의 한량없음 체득

"보살이 머무는 곳은 생각과 언어로서 나타낼 수 없다. 이 곳에 들어오면 생각하고 생각하지 않음이 모두 함께 적멸(寂滅)한다. 그러나 또한 적멸한 곳에서도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적멸한 그곳에 머무르게 되면, 바로 법계라는 생각에 얽매이게 된다. 이것은 교학에서 말하는 법에 걸리는 번뇌인 것이다. 법계라는 생각을 없애고, 갖가지 뛰어남을 일시에 모두 없애야 비로소 '뜰 앞의 잣나무', '삼 세 근', '마른 똥막대기', '개에게는 불성이 없다', '한 입으로 서쪽 강물을 모두 마신다', '동산(東山)이 물 위로 간다'는 등의 화두를 잘 볼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한 구절 아래서 홀연히 꿰뚫게 되면 비로소 법계의 한량 없음에 드는 회향(法界無量廻向)이라고 일컬을 수 있다.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실천하며, 있는 그대로 사용하면 곧 한 터럭의 끝에 부처님의 나라를 나타낼 수 있고, 작은 티끌 속에 앉아서 큰 법륜(法輪)을 굴려 갖가지의 존재(法)를 성취하기도 하고 갖가지의 존재(法)를 파괴하기도 한다."

이것으로 보면 영가선사와 마찬가지로, 화두에 의해서 성취한 세계란, 지식과 개념으로 분석에 의해서 얻어지는 법계가 결코 아니다. 오히려 분석하는 마음을 쉬는 그 자체가 바로 법계연기의 체험이다. 이것이 아주 정확한 표현이다. 화엄의 법계연기는 이론적인 설명으로 체득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간화선이란 바로 생각 자체를 쉬는 것이고, 이것에 의해서 법계연기는 경험된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간화선의 실질적인 세계관은 바로 화엄의 법계연기임을 알 수가 있다. 여기서 부정되는 것은 다만 법계연기에 대한 개념적인 이해라는 교학적인 태도일 뿐이다.

■인경(禪상담연구원장)
(02-733-5311, www.seontherapy.org)



우희종 교수의
불교와 생명과학 <2>

생체시계와 덕산의 점심(點心)

생물체는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체내 시계를 지니고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항상 반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시간이 과거로부터 현재를 거쳐 미래를 향하여 끊임없이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듯이 느껴진다. 하지만 경에서는 시간은 무시무종(無始無終)이라 하여 처음도 없고 끝도 없다고 하며, 금강경에도 '과거심불가득, 현재심불가득, 미래심불가득'이라는 구절이 있다. 그 옛날 금강경 강의로 유명했지만 아직 사물(事物)의 시간에 길들여져 있던 당시의 덕산 선사가 위의 구절을 들며 어느 마음으로 떡을 받겠느냐는 노파의 한마디에 아무 말 못했다는 선화(禪話)도 있을 정도이다.

생물체가 지닌 체내 시계는 주기적으로 사이클을 돌며 사계절은 반복되고 사물은 성주괴공을 되풀이 하고 있으니 원을 하나 그려보자. 나라는 생명체는 원주 상의 한점(태어남)과 또 다른 한점(죽음)을 잇는 것이기에 출발과 종점이 있고 방향성을 지닌다. 그러나 전체의 원을 보면 결국 무엇을 출발점이라고, 무엇을 종점이라고 할 것도 없다. 커다란 원이 있을 뿐이고 결국 돌고 돌 뿐이다.

비록 예로부터 불가에서는 한 물건을 나타내기 위해 큰 원을 하나(一圓相) 그리기도 하고 그 안에 점을 찍기도 하지만, 어차피 임의의 크기로 그린 원이기에 그려 놓은 원의 반지름을 조금씩 줄여가 보자. 점점 작은 원이 되었다가 점으로 되고 점점 더 작게 하니 눈으로는 보이지도 않아 없어져 버릴 것이다.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원주 상에서 한 방향으로 흐르던 시간은 점이 되었다가 없어진 듯 보이기에, 굳이 말한다면 한 점(一刻) 속에 무수한 시간이(永劫) 담겨있으며 결국 시간이란 애초로부터 가거나 오는 것도 아니요, 있거나 없는 것도 아닌 것이다. 시공(時空)이 이럴진대 이 비유를 통해 굳이 말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일 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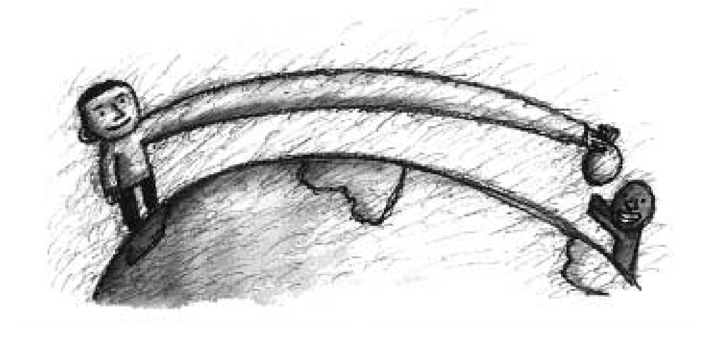
시간과 공간, 시작도 끝도없는 것
육근에 길들여진 생각으로 느낄 뿐

생명체 내부의 시계를 포함해 자연의 시계는 돌고 도는 것 같은데 우리는 왜 시간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향하여 한 방향으로 간다고 느끼고 있을까?

우리의 시간이 방향성을 지니게 된 것은 태어나 언젠가는 소멸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생명체가 자신의 육근(六根)에 길들여진 생각으로 자신과 이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에 생겨난 허망한 모습일 뿐이다. 시간과 공간이 상대적으로 상의상존함을 보여주는 현대 물리학에서 빛의 속도를 뛰어넘는 것이 불가능한 물질의 세계에서는 결코 시간을 거슬러 갈 수는 없다고 말하고 있지만, 개체의 아상(我相)에 길들여지지 않은 본디의 시간은 이와 다르다. 그렇다면 시간이란 어떤 것일까?

언젠가는 죽을 우리로서는 복제나 인공 장기 등을 개발해 환자의 생명을 몇 일 더 연장, 세계 기록을 경신했다는 따위의 생명과학에 흥분하기 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죽어가는 어린이가 수없이 많은 아프리카의 어린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과학 발달에 더욱 관심을 두고 힘써야 할 것이다.

■서울대 수의과대학 면역학교실



능인선원에서 행자스님을 모십니다

" 기도하시면서 대학 및 대학원 진학을 원하시는 스님들 모십니다 "

● 도심 불교 포교의 대명사 능인선원, 국녕사, 등룡사에서는 새로운 시대에 발 맞춰 함께 정진하실 행자 스님을 모십니다.
큰 뜻을 머금고 자신을 갈고 닦아 중생을 제도하고자 하는 행자 스님들을 모셔서 새시대를 열어가는 참된 수행자와 전법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참수행에 큰 뜻을 머금은 행자스님들의 많은 지원 기대합니다.
소정의 수행기간이 끝난 후 자신의 원력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시거나 대학원등에 진학하고자 하시는 분, 그리고 포교를 원하시거나 외국진출에 뜻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자신의 역량에 따라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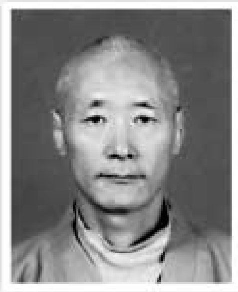
● 이미 스님이 되신 분들 가운데도 포교를 원하시거나 대학이나 대학원 그리고 외국에 진출하고사 하시는 분이 계시면 함께 모시고 열심히 기도 정진하는 가운데 소정의 과정을 거쳐 자신의 능력과 원력에 따라서 힘껏 지원을 하겠습니다.
많은 스님들의 지원 바랍니다.

▶『행 자』
– 자격 : 고졸이상 40세 미만
– 신체 건강하고,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스 님』
– 대학 및 대학원에 진학코자 하시는 분
– 승적증명서 입방원서
– 해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문의 : 577-5800 교 202 • e-mail : neungin@chollian.net
H·P : 011-9887-6351, 011-249-3378, 011-898-4680

각종 난치병, 신병
영 험 치 유


덕산스님

부처님의 가피력으로 중생의 고통을 치유 합니다.

◆ 현 혜광사 주지
◆ 동방파동명상연구소 1기과정 수료

덕산 스님이 기도를 통해 얻은 영험력으로 기공과 뜸을 이용한 전통요법으로 각종 난치병, 신병 등을 치유합니다.

(환자 스스로 마음의 눈을 통해 자신의 치유 과정을 보게 됩니다)

천도 및 제령 전문도량
혜 광 사

경기 안양시 동안구 호계 1동 986-9
031-452-0586 / 011-781-0587

제 4기 불교의식 (범음·범패) 무료교육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 교육과정
의식과정(주2회) :
기본과정, 중급과정, 범음범패

■ 모집인원 : 각 반 10명(선착순)

■ 원서접수 : 수시모집

■ 제출서류
이력서 1통
입학원서 1통
반명함사진 3매 3통

■ 문 의 : 031)562-2751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토록 지도함.
※ 전화, 서신문의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社團法人 일승불교대학

지장보살원력 입은 달마도 보급에 나선 보현스님

달마도의 신비스러운 원력 함께 나누는 삶 서원

보현스님

새벽 맑은 공기가 창을 넘어오는 시간이다. 달마도에 취해 명상에 빠진 보현스님은 날이면 날마다 붓을 들고 그리고 또 그린다.
앳된 여승을 바랑을 질어지고 목탁을 두들기며 서울 시내 지하철역마다 내렸다. 다시 타고 다음역으로 향하기를 수없이 반복하며 달마도를 1년에 전 지하철을 4바퀴를 돌며 불교을 전하고 그들의 찌든 마음을 열어주는 포교를 해왔다.

출가 후 줄곧 지장보살님을 모시고 발원에 발원을 거듭하며 증진하던 중 지장보살님의 화현하심을 영접하고 달마도를 펼쳐 보여 주시며 "이 달마도를 마음에 담아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려 보급하면 이 달마도가 있는 곳 마다 영험스러운 일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남기고 홀연히 사라졌다.

"그동안 많은 인연들이 저의 달마도를 소장하게 되었지요." 서울시내에만 무료로 일만 여점의 달마도를 보급해 그들이 달마도의 신령스러운 기운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지난 경제위기 때에는 안양의 00아파트를 지어 놓고 분양을 못해 부도직전에 이른 수원의 어느 건설회사는 분양사무실에 스님이 직접 그린 달마도를 걸어 놓고 분양을 시작했는데 전세대가 계약을 체결하여 입주를 마쳤다고 한다. 지금은 구로구에 법당을 마련하고 계속 불사중이며 홍익대에서 체계적인 그림공부를 하면서 날마다 달마도를 그리며 지장보살님께 "이 땅의 병들과 괴로워하는 모든 중생들이 모두 부처님의 법력으로 치유되고 마음의 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생들에게 달마선사의 원력으로 어렵고 괴고운 고(苦)의 세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날마다, 날마다 서원하고 있다.

문의 전화 02)857-4576, 017)430-5008
보 현 사 보현스님 합장